

##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

김 원

과학기술의 선도자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부문의 발전이 규제되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패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의 근본담보인 전쟁억제력도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전제로 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문명강국건설 역시 과학기술의 선도자적역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과학기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부문이 앞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군사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는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담보하기 위한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해당 나라의 군사력의 강약정도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강력한 군사력은 국제무대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확고히 담보하고 인민대중의 모든 행복한 생활과 앞날을 지켜주는 근본담보이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한 나라, 한 민족이 다른 국가, 다른 민족에 의하여 지배당하는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하는가 하는 운명적인 갈림길에서 항구적이며 결정적인 작용을 한것은 강력한 군사력이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본주의를 압도하고 타승하기 위한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이것은 오직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는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군력강화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작전지휘체계를 갱신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의 기술적수준을 높이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위적국방공업의 창설은 세계선진수준에 확고히 올라선 첨단과학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지자면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여기서도 중요한것은 새 재료기술, 컴퓨터응용기술, 나노기술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름아닌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에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결국 우리의 군사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최강의 군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국방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삶에 대한 걱정없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섰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승전의 포성을 울린다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게 된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는 나라의 주타격전선이다.

우리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목적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온갖 만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자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나라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대시키는데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경제의 모든 부문의 비약적발전을 담보하는것도 다름아닌 과학기술이며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담보도 과학기술발전에 있다.

생산에 기계가 도입된 기계제산업시대의 출현으로부터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에 이르는 기간 어느 나라에서나 과학기술은 경제의 발전을 추동하고 물질적부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에는 누가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쟁취하고있고 자원을 많이 장악하고있는가에 의하여 나라의 생산력발전수준이 좌우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많으면 그만큼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현시대에는 자원이나 노동력보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더우기 오늘날 사회경제생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되고 일체화되고있는것이 현대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현시대에는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으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빨리 발전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높이와 속도가 규제되게 된다.

이런데로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사회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보고 인재쟁탈전을 치열하게 벌리고있으며 자기 식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발전에 아낌없는 국가적투자를 하고있다.

특히 발전된 나라들이 저들의 첨단과학기술적우세로 기술이 덜 발전된 나라들을 대

상으로 과학기술협조와 원조, 경제기술적합영과 합작의 간판밑에 그 나라들의 경제를 저들의 지배밑에 두려고 하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은 나라의 장래운명과 인민들의 꿈과 리상을 지켜주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과학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빨리 발전할수록 그만큼 경제발전이 힘있게 추진되며 현대화, 정보화된 튼튼한 경제토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강력한 경제력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나갈수 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경제를 하루빨리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에네르기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한 문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발전시키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온 강산에 차넘치게 할수 있다.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이다.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지름길이 있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할수 있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도 승전의 포성을 계속 올려나갈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문화를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가장 훌륭한 조건과 환경에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문명강국이다.

문화는 인민대중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전된 힘있는 존재로 키워 사회발전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커다란 작용을 한다.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증대시켜 사회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지만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고 정신적불구자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데로부터 해당 나라의 발전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 문명수준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사회발전의 기본담당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문명의 높이도 마땅히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의 모든 분야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다방면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발전되고 인민대중이 자기의 손으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며 마음껏 향유하는 나라가 참다운 의미에서의 문명강국이라고 할수 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에 와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하여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고있다.

사회경제생활에서뿐만아니라 인간의 사상정신적면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 것으로 하여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투쟁 역시 과학기술에 의거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간들로 준비시키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투쟁이며 이것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전제로 하고있다.

오늘의 시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출것을 요구하며 무엇을 하나 건설해놓아도 모든것을 세계에 내놓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문명강국건설은 모든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새로운 높이에서 참신하게 해나가며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고 세계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먼 미래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한것들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으로 되며 이 모든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첨단수준에 올려세울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문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비결도, 이 땅우에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근본담보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있다. 교육, 보건, 체육, 출판, 문학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자면 그에 맞게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이 안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내달려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문화를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과학기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노는 역할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높이에도 단번에 비약하는 비결도, 제힘으로 만난을 뚫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근본담보도 과학기술에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기어 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과학기술, 첨단돌파